

미국연수를 다녀와서

연세원주의대 내과 김상하

지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직 어린 둘째 아이가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고 하며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기대했던 어린이 만화는 방영되지 않고 오래된 옛 영화 하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예과학생이었던 저의 아직은 때묻지 않은 말랑말랑한 감성으로 인해서인지 보는 내내 저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었던 영화였지요. 아이들이 크면 함께 봐야지 했던 영화였는데, 뜻하지 않게 함께 보게 된 둘째 아이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눈을 연신 가려가며 “아빠, 아직도 뽀뽀해요?”, 간간히 끼여있는 연소자관람불가 장면을 그렇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National Jewish Health 로 Erwin W. Gelfand 교수 연구팀에 소속되어 2년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관에서 함께 있었던 아주의대 예영민 교수의 연수후기 글이 있었고, 또 제가 일하기 얼마 전에 동일한 연구팀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경상의대 정이영 교수와 아주의대 신유섭 교수의 연수생활 이야기가 이미 생생한 기록으로 소개된 바가 있어서 이 글을 통해 제가 연수를 했던 기관이나 연구팀을 소개하는 것이 그리 새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이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다녀온 ‘느낌’과 ‘다짐’도 조금은 다를 듯하여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적어봅니다.

영화에서는 화재로 시력을 잃은 알프레도가 젊은 토토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말아라. 이곳의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고향마을의 경험이 전부였고 행복이었고 사랑이었던 젊은 토토의 머리를 감싸 줘고 늙은 알프레도가 다짐을 받는 듯이 얘기를 하고는 기차로 고향을 떠나 보냅니다.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러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된 토토(살바토레)는 알프레도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마을에 오게 되고 많은 것을 추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알프레도의 유품으로 받은 옛 필름을 돌려보며 자신을 고향에서 떠나게 했던 알프레도를 추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많은 생각과 느낌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옛 영화에서 흘러나온 대사가 저에게도 말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절대 돌아오지 말아라. 이곳의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연수기간을 통해 저와 가족은 미국의 비교적 느린 시간의 속도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회복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지금은 종종 그 때를 돌아보며 추억하고 싶어집니다. 돌아와야 할 무렵에는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저와 가족에게 앞으로 귀국 후에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혹시 그 시절을 추억할 기회가 온다면 그 때 꺼내보기로 하고 이젠 짧지 않았던 미국에서의 생활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겠다는 좀 이상한 결심을 이 글을 쓰며 해봅니다.